



6면

설 일주일 전 차례상 비용 '안정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년 1월 27일 목요일 (음 12월 25일) 제295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북적이는 전주남부시장 도깨비 장터 설 명절을 앞둔 26일 전주남부시장 도깨비 장터가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의료비 지원 대상 39개 추가

도, 중증 화성성 한선염 등... 환자에 추가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전북도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39개가 추가 지정돼 1,147개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이다.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질환으로 지정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10%로 낮춰주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른 본인부담 비용 10%에 대해 일정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가입자에게 의료비를 지원(일부 질환은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귀질환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경영 도 건강증진과장은 "국내 희귀질환자가 2020년 약 80만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희귀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민 건강증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질환 확대도 도내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의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생태문명 견인 자치도정 구현'

전북도 자치행정국, 올해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투명한 재정운영 등 4대 목표 18개 과제 추진

전북도가 생태문명시대를 견인하는 자치도정 구현을 내걸고, '도정의 인적적 지원과 주민의 자치실현을 정착시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자치행정국은 2022년 도정운영 방향으로 ▲수평적 협력으로 열린 자치행정 구현,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투명한 재정운영 등 4대목표를 설정하고, 18개 세부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이는 지방분권 2.0 시대를 맞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도민과 직원의 인적적 회복 지원을 통해 생태문명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았다.

중앙·도·시군간 소통을 내실화하며, 직능·사회단체와 소통 등을 통해 도민과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차질없는 전북도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확정 등 공명장대한 선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학생들이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16억원)과 미래인재육성(9,000명), 장학금 지원(350명) 등 각종 지원책을 추진한다.

▲활력있는 직장문화 조성 및 균형인사 실현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을 27%까지(행안부 목표 17%) 높이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3.6%)를 위해 도에서 일괄채용할 계획이다.

또한, MZ세대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공직문화 이해와 뉴노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직 공무원(과장, 팀장)의 맞춤형 교육을 하반기 중

에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선발인원을 상향(100% → 110%) 조정하고, 인·적성검사를 새롭게 도입해 직무 적합자를 선발한다.

직원들을 위한 운동채상 프로그램을 연 1,200건으로 확대 운영(2021년 600건)하고,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속기관·사업소까지 확대(정기 방문)해 직원복지증진에 노력한다.

전북도 기록원 설립 추진을 해 도정 기록물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시청각 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시청각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도정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

올해 자체수입 징수목표액은 1조 9,138억원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탈루·은닉세원 발굴 간편납부제 홍보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며, 신규로 체납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도입해 과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납세자 권의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등 지방세 구제 청구권에 대해 현지확인하고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취약계층 무료 세무상담을 위한 마을세무사(83명) 운영,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도 시행한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지역제한입찰 지역외공공도급 등을 적극 활용해 도내업체 우선계약(95% 이상)을 추진하며, 코로나19 지원 예산의 당일 신속집행과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한다.

청사동과 의회동 옥상바다를 보수하고, 공연장 등 무대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천년누리광장 그늘막 설치, 옥상정원화 사업 등을 통해 도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분권 2.0 시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도정 지원부서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다문화가족 포용 사회 안전망 구축 '중점'

도, 자녀 맞춤형 사업 신규 추진

전북도가 올해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포용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날 14개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공무원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다문화가족지원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그간 전북 학생 수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18,026명(9.3%)이 감소한 반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이 자녀는 1,387명(17.1%)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학령기 자녀의 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연계해 학업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취학 전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학습 지원을 통해 학령기 진입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 정착 주기 장기화를 고려해 결혼이민자 초·중·고 검정고시반

을 운영하고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이종언어강사, 다문화이해강사 등 직업훈련교육도 실시한다.

더불어, 직업훈련 교육으로 양성된 이종언어강사가 전북교육청에 '다문화 모국어 언어사업'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결혼이민자가 검정을 살린 직종에서 꾸준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인 체류 및 고용 업무, 고충상담, 통번역 서비스 등 원스톱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지원해주는 '찾아가는 외국인 현장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방송 '다정다감'을 제작·송출하고, 다문화소식지 '사랑발발', 다문화이웃돕기제 개최,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전북도 다문화정책을 소개하는 방송에 적극 참여해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유호상 기자

오늘이 아름다운 **무주**

코로나19로 지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 **muju**